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1733
----------	-------

발의연월일 : 2021. 7. 26.

발 의 자 : 배현진 · 권성동 · 조해진
김은혜 · 유경준 · 서일준
박성중 · 정경희 · 홍준표
박대출 · 지성호 · 윤재옥
황보승희 · 박성민 · 강기윤
하영제 · 강민국 · 이양수
주호영 · 유상범 · 조수진
정진석 · 김영식 · 박형수
홍문표 · 김용관 · 이종배
안병길 · 허은아 · 김태흠
권명호 · 김정재 · 엄태영
서병수 · 박대수 · 김희국
조태용 · 김병욱 · 윤희숙
정운천 · 하태경 · 류성걸
구자근 · 이 영 · 윤영석
강대식 · 김기현 · 홍석준
박 진 · 김예지 · 이채익
윤한홍 · 이만희 · 김미애
태영호 · 이철규 · 박완수
신원식 · 임이자 · 이달곤
최춘식 · 이주환 · 김형동

곽상도 · 김태호 · 서정숙
송석준 · 김희곤 · 정동만
유의동 · 한무경 · 정점식
조경태 · 정희용 · 김석기
김 용 · 김성원 · 서범수
윤창현 · 조명희 · 박수영
이현승 · 김상훈 · 최승재
이명수 · 이종성 · 추경호
양금희 · 최형두 · 백종헌
이 용 · 김선교 · 성일종
김도읍 · 배준영 · 한기호
권영세 · 김승수 · 윤주경
전주혜 · 윤두현 · 정찬민
장제원 의원(103인)

주 문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 이른바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약속했던 '한국인 강제노역 인정 및 희생자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강제노동 역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음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며 많은 한국인들이 군함도에 강제 동원되어 노역했음을

여전히 왜곡 및 은폐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개관한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처참했던 노동환경과 학대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전시를 개최하는 등 역사적 진실을 숨겨왔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군함도에서 자행한 한국인 강제노역을 부정하는 점, 그리고 오히려 학대 사실을 숨기는 거짓 전시로 희생자들을 모욕한 점에 대해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즉시 역사왜곡 행태를 중단하고, 군함도 등재 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후속조치들을 속히 재이행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수많은 한국인을 군함도로 강제동원해 노역시킨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전시로 희생자 및 유족들을 모욕한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국제사회 앞에 공식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내의 전시물 중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노역 실상을 왜곡하는 전시물들을 역사적 진실만을 반영하도록 변경하고, 한국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할 2022년 이행
경과보고서에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과 당시 열악했
던 노동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진실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군함도 세계문화유
산 등재 시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조치들을 불이행함에 따른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함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또
한 지속적으로 거부 할 시 유네스코에서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재 취소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를 국제사회
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네스코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2015년, 수많은 한국인들이 처참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을 하며 목숨을
잃은 일본의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
로 등재되었음. 당시 일본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가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을 당하였음’을 국제사회

에 알리는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 함으로써 등재가 결정된 바 있음.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은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희생자들의 비참했던 실상을 왜곡하는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이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규탄하고, 유네스코에 약속했던 후속조치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함.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군함도 세계유산 재검토 논의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